

21

LESSON
문신과 성경

LESSON 21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5
디모데후서 3:16-17

주제: 그리스도

필요 자료: 성경

추가 자료: 없음

내용 요약: 복미 한인 교회는 성경을 믿음과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똑같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권위 있고 명확하며 믿을 만한 원천입니까? 성경의 어떤 본문이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 한정된 것이고 어떤 본문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인지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낼 수 있을까요? 이 과는 성경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서 가장 심오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대한 고유하고 비할 데 없는 증거임을 가르칩니다. 이 과는 또한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 목표: 이 과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성경에서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국한된 부분과 보편적이어서 현재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법
- 성경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 성경을 “예수 원리”로 해석하는 법



이야기

톰과 제시와 매튜는 서로 친한 기독교인 친구들입니다. 셋은 밴쿠버에 있는 한인 교회의 청소년부에 다닙니다. 제시는 청소년부 리더 중 한 명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따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친구인 매튜가 문신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이에 관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시는 논쟁 중에 매튜에게 레위기 19장 28절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봐! 기독교인은 절대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하나님은 네가 문신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

매튜는 맞받아치면서 제시에게 말했습니다. “참 나, 제시 넌 진짜 답답하네! 그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쓰인 거야, 아마 우리는 알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한 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하는 건 말도 안 돼. 게다가 나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작은 십자가 문신을 팔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친구들도 그것에 관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전도할 기회도 생길 거야.”

옆에서 그 논쟁을 듣고 있던 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시와 매튜가 각자 주장을 했지만, 톰은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았거든요. 톰은 이럴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질문

1. 성경이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 어떤 권위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시와 매튜의 입장을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에 공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문신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사느냐에 관하여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 제시와 매튜의 입장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제시는 레위기의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문신에 대한 이 지침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레위기의 이 명령을 21세기 사람들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튜는 성경이 쓰였던 고대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고대의 책으로서 현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많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특정 시대와 장소에만 관련되고 어떤 부분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지도적인 원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문신: 레위기 19:28에 대한 사례 연구

레위기가 쓰였던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식적 문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교의식과 장례 의례 시, 특히 애도의 시간에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대부분의 고대 근동 지방 문화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이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민족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것이 쓰였던 때의 고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 레위기의 구절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현재 세상의 십 대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하고 있는 일 중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삼가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제시와 매튜가 제기한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그것이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할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까? 그룹과 나누어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제시와 매튜가 부딪혔던 것과 유사하게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졌던 경험과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의문을 가진 여러 구절에 대해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완전한 대답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가졌던 성경의 특정 절이나 구절의 예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약

제시와 매튜는 둘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여기서는 문신에 관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시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고, 이 구절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반면, 매튜는 이 구절이 어떤 특정한 이유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자신이 팔에 십자가 문신을 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시와 매튜의 대화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 줍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그것이 쓰인 시대와 장소에만 해당하고, 또 다른 부분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현대의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문신을 금지하는 구절인 레위기 19:28을 21세기의 우리 상황에 바로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구절은 쓰인 당시의 사람들과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5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디모데후서 3:16-17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깊이 생각해 볼 내용

성경 읽기와 관련하여, “증언”이라는 중요한 개념

이 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경의 구절을 이해하려 시도할 때 우리는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성경)이 살아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실체를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성경 읽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언이 아니라 이기적이거나 악한 목적으로 해석되고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수 세기에 걸쳐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성경(특히 창 9:25의 애매한 구절을 지적함으로써)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 살아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갈 3:28, 요한복음 10:10)에 대한 증언이 되지 못하도록 잘못 해석하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증언(인)” 혹은 가리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는 ‘가리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에게 손가락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저기 좀 봐!”하고 말하면, 개는 여러분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손가락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자기 자체가 아니라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친절, 자비, 자유, 치유,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인도합니다. 만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속박, 편견, 비열함, 상처 입히는 행동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설

요한복음 1:1-5

복미 한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거의 언제나 성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따르면 “말씀”은 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성경)과 살아 있는 말씀(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 기록된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 또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성경은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의해 쓰였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가리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16-17

이 구절에 따르면, 성서 또는 성경(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서 요한복음 1:1-5에서 보았던 것처럼 살아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빛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형성하고 훈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 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도록 하려는 아주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대적 의미에서 “과학”이나 “역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할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질문

1. 요한복음 1:1-5이 가리키는 “말씀”은 무엇 또는 누구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도록 지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14절 말씀을 학생들이 읽어 보게 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

2.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이 분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성경과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연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가리키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내용이자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더 큰 실체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는 원칙으로서 ‘예수 원리’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위한 ‘예수 원리’ (‘그리스도 중심 원리’라고도 함)

성경 해석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이 육신의 형태로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관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17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성경 해석의 초점으로 말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도 보시기 바랍니다(누가복음 24:27, 44; 요한복음 5:39; 히브리서 10:7).

마태복음 5:17-18(메시지 성경)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 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3. 디모데후서의 본문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빛고 훈련하는 것입니다(위의 해설을 참고하십시오).



적용

1.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룹과 나누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이든 설교를 듣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혹 그 경험이 특정한 구절을 통해 일어났다면 그 구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해 그룹과 나누어 보십시오.

성경이 교사인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예로 들어 준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경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갔는지 또는 어떤 특정한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남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성경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짧게라도 매일 성경 읽기에 시간을 드리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그룹과 나누십시오(예를 들어 매일 10-15분 성경 읽기 등).

학생들이 자신의 다짐을 나누도록 격려하십시오. 요한복음 또는 시편 등 성경 중 한 권으로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거나 셀폰에 있는 성경 읽기 앱(“매일 성경”)을 따라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